

전북대 이태훈 교수, 포스코사이언스 펠로우 선정

전북대학교 이태훈 교수(공대 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공학전공)가 포스코 청암재단이 주관하는 2026 포스코사이언스펠로우십 신규 펠로우에 선정됐다고 17일 전했다.

포스코청암재단의 포스코사이언스펠로우십은 국내 대학의 신진 교수를 선발·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초과학(수학·물리학·화학·생명과학)과 응용과학(금속·신소재, 에너지소재) 분야에서 매년 약 30명 내외의 연구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75개 대학의 440명의 신진교수가 지원서를 제출, 14대 1을 넘어서는 경쟁률을 보였다.

이 교수는 AI와 전산모사 방법론을 바탕으로 차세대 에너지 소재의 설계·개발 연구를 수행하며 국제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2019년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화학과에서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2023년부터 전북대 신소재공학부(전자재료공학전공)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펠로우십을 계기로 AI 기반 연구 방법론을 적극 도입해 차세대 에너지 소재 개발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교수



남원가족센터, '가족과 함께하는 에버랜드' 진행

남원시 가족센터(센터장 나찬도)는 지난 15일, 다문화가족 20명과 함께 가족캠프(3차)를 진행 캠프는 '가족과 함께하는 에버랜드'라는 주제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본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에서 다양한 놀이시설을 즐기며 활력을 나누었다.

남원시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해 △결혼이민자 고학비들이 지원사업 △심리·정서상담을 통한 마음성장 지원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과 김미옥 과장은 “남원시는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금동, 노인일자리 어르신에 방한용품 배부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17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75명을 대상으로 겨울 장갑과 귀마개 등 방한용품을 배부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교육은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저체온증, 낙상 등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 7개조 근무자를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남원시의 주요 시청현안과 복지정책을 소개하며 어르신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기회도 제공하였다.

김봉례 금동 동장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어르신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백구면, 서귀포시와 농특산물 상호교류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래)가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쌀 약 3,000만 원 상당(4kg 57포, 10kg 404포, 20kg 255포)을 자매결연을 맺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옥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백구면과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15년 자매결연 이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이어오며,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두 지역 간 상호교류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매년 꾸준히 확대되며, 각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올해 전달한 쌀은 지역 농가가 생산한 고품질 신동진?지평선 쌀로,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는 이를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공동체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교류는 단순한 농산물 전달을 넘어, 양 지역이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상생 중심의 교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제=곽노태 기자

도움 준 분들에게 감사의 뜻 전해

제15회 얼굴없는 천사축제 조직위, 공로패 전달

제15회 얼굴없는 천사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노동식)는 17일 축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도움을 준 분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공로패 전달식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15회 얼굴없는 천사축제가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축제 추진 과정에서 각종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분들에게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노동식 얼굴없는 천사축제 조직위원장은 “천사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나눔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함께 힘을 보태 주신 많은 분들의 덕분”이라며, “특히 축제 과정 곳곳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나눔과 화합의 지역축제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권희성 기자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오광석 의장은 지난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회장의정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군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실현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오광석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제9대 무주군의회 의원으로 재직해 오며 ‘무주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군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무주군민을 비롯한 전북도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의정협의회 월례회에 ‘송전선로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는 등 군민 생활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에 앞장섰다.

또한 ‘무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촉구’ 5분 발언 등 여러 차례 공개 발언을 하며 군정 전반의 문제점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무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시자봉센터,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情가득 김장나눔 성료

군산시자봉센터(이사장 황진)는 17일 k-푸드 문화체험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김장과 情버무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한미군과 관계자, 군산에서 지원해 준 통역봉사자들과 일반 자원봉사자 60여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음식인 김장김치를 함께 담그며 한국 사람들이 김장을 하게 된 배경과 최고의 발효식품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k-푸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강임준 군산시장도 함께 김치 만들기에 참여하며 화가애한 분위기에서 직접 용기에 김치를 9kg씩 포장해 전달 준비까지 마무리하였다.

이번 김장김치는 자립청년 20세대와 한부모가정 20세대에 전달되며, 자립청년 20세대에는 생필품 세트도 함께 지원해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정서적 위로를 함께 전달 예정이다.

또한 김장담그기 행사 후에는 전통음식 마당으로 이동하여 일명 ‘김장조각’을 입고 갖 담긴 김장김치와 수육, 막걸리, 식혜, 전통떡(약밥, 무지개떡, 꿀떡) 등 K-푸드를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뒤이어 전통놀이마당에서는 주한미군과 자원봉사자가 다래와 솔밭털기로 나누어 제기차기, 투호, 단체 율령기 등을 함께 즐기면서 한미 간 우정과 협동심을 기르며 친목을 다졌다.

행사가 끝난 뒤 군산시는 주한미군들에 처음으로 담긴 맛보기 김치와 식혜, 떡을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선 물로 준비하였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농협·전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과 농촌 일손돕기

전북농협과 전주교도소가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최근 전주시 소재 딸기 농가를 방문해 전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영농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키우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에는 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과 수용자, 전북농협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딸기 하우스 내 상토 정리 등 작업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농협과 전주교도소 간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심성 순화와 사회 복귀를 돕는 사회공헌형 봉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임실문화원, 제9회 임실문화원의 날 기념식 개최

임실문화원이 지난 15일 제9회 임실문화원 날 기념식과 제1회 임실군 꿈의 무용단 정기 공연을 임실문화원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심 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 및 문화원 회원, 무용단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공로패 수여, 축하 공연의 무용단 정기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제9회 임실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는 문화원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들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수상자로는 임실군수 상을 받은 이강국 이사를 비롯해 총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임실군 꿈의 무용단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을 확보하여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이정환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보라미봉사단의 따뜻한 나눔이 농가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무주군4H연합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4H연합회 17일 (제)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장학금은 무주군4H연합회가 올해 과제포에서 생산한 농산물(감자) 판매 수익금과 제3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부스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무주군4H연합회 이정훈 회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실천과제를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지원에 보탬이 되자고 뜻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무주농업 발전과 인재 육성에 꾸준히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4H연합회는 1992년 구성해 50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며 회원들의 기술력 향상과 협동심 함양, 농촌 리더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및 영농활동, 사회공헌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금민농협, '사랑의김장김치 나눔 행사' 개최

김제 금민농협(조합장 최승운)은 여성조합원 120여명으로 구성된 농가주부모임회원(회장 강혜례)과 함께 마을 경로당 및 독거노인 등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송산면에 위치한 금민농협 육묘장에서 지난 14일 개최하였다.

금민농협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회원 120여명이 참여하는 김장행사는 10일부터 밤에서 직접 기른 무와 대파, 갓등을 뽑고 여름에 담긴 것들을 다리며 농가주부모임회원들이 협찬한 무, 양파, 마늘, 생강, 쪽파 등 양념을 다듬고 만들어 14일 2,500여 포기 맛깔스런 김장김치를 담가 마을 경로당 및 독거 어르신 가정에 전달하는 훈훈하고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성주 김제 시장은 8년째 김제농협 김장나눔에 참여해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수능 후 전주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계도활동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선도와 계도 활동을 위해 지난 14일 전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계도 활동에 나섰다. 대한청소년보호선도회 중앙회(회장 임종근) 산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이중 1지구를 중심으로 이중지 구대의 도움과 전북광역협의회 함께 합동으로 지도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이 찾을 수 있는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으로 이어졌다. 특히 청소년 출입시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을 기반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설명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안내 스티커 부착 명령 등을 진행했다. 2개 조로 편성해 각 음식점과 편의점에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사항 등을 점검했다.

김제 진봉면 주민자치위, 사랑애킴장담그기 행사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서 2025 사랑애킴장담그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정성과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한 ‘사랑애킴장담그기’는 진봉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적인 특색사업으로, 매년 늦가을이면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김장을 담그고 이를 관내 경로당저소득 가정, 독거 어르신, 조손가정 등에 직접 전달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성껏 담긴 700여 포기의 김치는 어려운 이웃의 식탁에 따뜻한 밥상으로 올려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기자